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뻬텔레이몬 대순교자

마태오 제 7주일

성 빠라스게비 수녀 대순교자

제 6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제 6조 부활찬양송 / 82, A 216

•주일 입당송 / 14, A 42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A 226

•사도경 : 갈라디아 3:23~4:5 / 봉독서 244

•복음경 : 마태오 9:27~35 / 112, B 41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 성 뻬텔레이몬 대순교자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사람을 가치 있게 하고, 위상을 높이고, 빼어나 보이게 하는 교육은 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덕입니다. 문자들과 학문들은 사람들의 삶을 보조하는 매개체일 뿐이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7월 27일 축일로 기념하는 의사인 니코미디아의 성 뻬텔레이몬 순교자입니다. 젊고, 훌륭한 학문을 수학하였

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었고, 사람의 최종 목적이 어떤 것인지, 삶에서 지식과 학문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인은 학문과 거룩함을, 의술과 자선을 접목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통한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먼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배우고 나중에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쌓아갑시다.



## 나쁜 것에 대한 투쟁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주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 이러한 나쁜 것들을 왜 방치하시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 : 하느님은 나쁜 것의 근원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 나쁜 것이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참 좋게” (창세기 1장 참조) 창조하셨습니다. 추락한 이후의 사람이 나쁜 것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의문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 옆 사람이 잘못을 조장할 때 “나는 어디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에서, 이웃사이에서, 집에서, 나라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나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나쁜 것을 말로 비판하는 “검사”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떠한 결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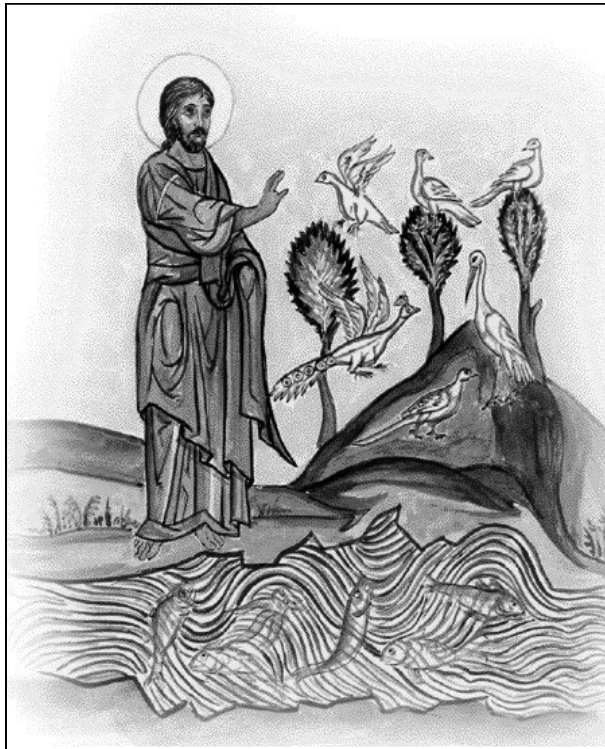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편견의 눈으로 우리 곁에 있는 나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의 눈은 단순히 두려워하여 모험에 얽히지 않으려하거나, 우리의 휴식을 잃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거나,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에 어떤 힘을 쓰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군인들의 유대인 대학살이 세상에 많이 알려진 후에 독일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모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하였고, 많은 가정이 분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테러, 폭력, 따돌림, 마약밀매, 아동매춘, 인간의 자유가 짓밟힐 때, 환경이 오염되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각자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바로 아니면 천천히 나중에라도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 가정전력

**전** 기 기술자들이 쓰는 말에 ‘가정전력’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흔히 신문 같은 곳에서 아래와 같이 물어보는 광고를 보게 된다.

“여러분의 집은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아 ‘가정전력’에 정도 이상의 너무 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계속해서 퓨즈가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난다. 날마다 우리의 ‘개인적인 전력’(?)에 부과되는 무거운 요구들을 생각해 보라. 삶의 많은 문제들과 유혹들을 직면하는데 필요한 ‘힘’을 생각해 보라. 일상적 삶에서 겪는 여러 압박감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생각해 보라. 충분한 내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른바 ‘퓨즈가 나가게 되고’, 정서적으로는 피폐해지며 좌절감

을 맛보게 된다.

오순절에 나타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내면의 힘과 지혜를 줌으로써 모든 외적인 압력들을 성공적으로 견디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이

다. 이와 똑같은 성령이 오늘날에도 교회와 기도, 신비의 성사들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을 것이다”(사도 행전 1:8)라고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

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강력하지만 평화로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힘 쓰자.

아타나시아



## 주보소식

### 대교구

➡ NCCK의 '성 소피아 성당 박물관의 모스크 전환에 대한 성명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서호석 목사)는 터키 정부가 성 소피아 성당 박물관을 모스크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항의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터키대사관과 콘스탄티노플에 전달하였습니다. NCCK는 성 소피아가 1934년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개조되었고, 이후 86년간 이 곳은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치의 상징적 장소가 되어왔으며, 다시 이 곳을 모스크로 전환하는 것은 역사적인 퇴보이자 성 소피아 성당의 상징적인 의미와 존재 이유를 상실케 하고 성 소피아 성당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필요했다면, 이 곳이 916년 동안 속해 있었던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큐메니칼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의 선언 "성 소피아 성당은 인류에 속한다.", "박물관으로서의 성 소피아 성당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과 연대, 상호이해의 상징적 장소"임에 전적

으로 공감한다며, 터키 정부의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NCCK는 위의 내용을 모든 신문에 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 여름 수련회 취소

올해 여름 수련회(English Camp)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성직자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취소합니다. 대신에 각 지역성당에서 상황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1일 혹은 2일 프로그램을 가지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며 기도합시다.

### ➡ 문체부장관 만남

지난 7월 16일(목)에 문체부 박양우 장관 초대로 NCCK의 교단장들과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정교회의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가 참여하여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고 또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